

현실부적응자가 모색하는 삶의 출구

미국에서 더 성공한 안정효문학의 매력

하응백

문학평론가

한국 소설이 미국에서 번역되어 미국 매스컴의 화려한 찬사를 받으며 수십만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된다. 같은 작가의 다른 소설이 영화로 각색되어 외국 유명 영화제에서 각광을 받는다. 이 일련의 사실들은 국내 대중에게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는 사항이지만, 바로 그 외국에서의 유명세는 소설 자체에 대한 평자들의 혐오 혹은 폄해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문학작품의 속성은 현대자동차나 프로세스 운동화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땅의 평자들은 문학작품의 대중적 인기나 명성이 문학적 성취도, 즉 문학적성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한다. 만약 그 명성이나 유명세가 미국을 배후로 두고 있는 것이라면 심적이지는 하나 일단은 혐오의 눈길을 보내며 애써 무시하려 든다. 민족적 자존심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유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 미국 대중문화의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 지식인 평자들에게는 요란한 팝송과 펑크스타일의 머리 모양과 마약과 동성연애, 그리고 근육질의 람보와 기계인간이 등장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고작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한반도의 허리를 자른 당사자이기도 하며, 광주의 배후에 점잖게 도사리고 있고 6·25이후 가루우유와 밀가루를 공짜로 주어 우리를 거지로 전락시키기도 했으며, 지금도 그들의 군대를 주둔시켜 돈과 성의 힘으로 우리의 여성을 짓밟고 있으며, 우리의 고위 각료를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며, 그들의 영광을 위한 전쟁에 철면피한 세리처럼 분담금을 강요하는 나라이며, 그러면서도 제때하게 농약으로 오염된 농산물까지 팔아먹으려는 나라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혐오를 부추긴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혐오의 근거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우리 문학작품이 그 나라에서 격찬받고 많이 팔린다는 바로 그 이유가 작품의 문학적 자체를 폄해시키는 것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문학작품에 대한 우리의 객관적 평가가 민족의 자존심 회복 또는 대등적 관계를 위한 요건이 된다. 문단의 관심에서 한켠으로 물러나 있던 안정효문학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전쟁체험과 뿌리뽑힌 자의 삶

안정효 소설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 주제는 외부의 물리적 요인에 의한 뿌리뽑힌 자의 삶, 현실부적응자의 존재 방식이다. 이 주제는 「은

마는 오지 않는다」에서부터 최근작 「황야」에 까지 이어진다.

「은마는 오지 않는다」에서는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금산리 마을의 붕괴와 그 마을의 고유성을 대변하는 황노인의 몰락, 그리고 언례의 파멸과정이 사실적으로 제시된다. 「하얀전쟁」이 주인공 '나' (한기주병장)의 관찰과 체험에 의한 보고문학이라면 「은마는 오지 않는다」는 작가가 금산리 마을의 붕괴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정공법의 소설이다.

홍수로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 언례는 '우연히' 그 마을에 주둔한 미군병사들에게 윤간당하고 그 과정은 아들 만식과 마을사람들에게 목격된다. 이 '우연'은 언례가 당하지 않았다면 마을의 그 누군가의 여자가 당했어야 할 '필연'적인 것이다. 이 강간은 전쟁으로 인한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삶과 가치관의 붕괴를 상징한다. 강간을 당한 뒤 언례는 마을의 성원으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며, 그녀의 아들 만식 역시 꼬마들의 세계에서 따돌림을 받게 된다. 언례가 서서히 양갈보가 되어가는 과정은 도덕적 타락의 양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생명력의 끈질김을 보여준다. 전쟁과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금산리 마을과 언례의 파멸과정이 좌우의 이데올로기의 개입없이 전개되는 것이 이 소설의 특이성이다. 「영웅시대」식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멸, 「태백산맥」식의 이데올로기의 적극성 수용 등의 소설쓰기 방식은 좌우의 이데올로기가 강한 응집력을 가지며 소설의 중심부에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은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나 이동하의 「장난감 도시」가 6·25를 환기하는 방식처럼 전쟁의 디테일한 상황 그 자체에 대한 환멸을 내장하고 있다. 전쟁 상황 그 자체가 인간을 파멸시킨다. 「은마는 오지 않는다」가 반전소설로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식이 손가락을 잃어버린 뒤 피난길에서 언례와 자연스럽게 화해하듯이 이 소설에서 인물끼리의 갈등(황노인과 언례, 언례와 만식)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들 모두 삶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황망한 피난길로 내쫓기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그들 모두이며 가해자는 오직 전쟁일 뿐이다.

「하얀전쟁」 역시 전쟁으로 인한 삶의 뿌리뽑힘, 전쟁 상처의 치유 불가능성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은 세 가지의 이야기가 동시적으



안정효씨

로 진행된다. 하나는 유년기의 6·25체험이다. 이 6·25의 쓰라린 체험은 앞으로의 '나'의 의식을 결정짓는다. 또 하나는 월남전 체험이다. 소모품에 불과한 전투병으로서의 극한 상황이 소설 전반에 걸쳐 제시된다. 소설의 무게 중심이 가장 많이 쏠리는 이 월남전 체험은 그 후의 '나'를 현실부적응자로 만든다. 월남전의 또 다른 피해자 변진수 일병과 마찬가지로 '나'는 다중인격(multiple personality)자가 된다. 마지막 하나는 팔태총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현재의 '나'이다. '나'는 회사에서도 한직으로 밀려나고 아내와는 이혼단계에 이르러, 그러면서도 그 현실을 타개할 능력이 없다. '나'는 직업도 사랑도 생식도 모두 불가능하다. 이 생식불능의 원인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하고 또 오리떼가 시체를 뜯어먹는 장면을 목도한 자의 삶의 건강성과 신성성 상실, 즉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파괴에 있다. '나'는 원래 생식불능자가 아니었다. 그의 정액 속에는 '힘차게 꼬물거리며 해매는 올챙이'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시간적 거리가 있는 세 이야기는 '나'의 의식 속에서 한 이야기로 진행된다. '나'에게는 6·25나 월남전이나 현실이 모두 '혼란의 세계에서 소음과 파괴의 목졸린 비명같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그렇게 만들었다.

전쟁에서는 인간이 모두 죽는다. 비록 육체는 살아있더라도 타인의 죽음을 통해 모든 병사의 영혼이 마르고 죽어버린다. ……죽어간 병사들이나, 지금 영혼이 죽어가는 나는 의미를 잃는다. (「하얀전쟁」, P127. 윗점 필자)

44명의 소대원 중 생존인 7명에 '나'가 끼어

있더라도 '나'는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변진수 일병을 권총으로 사살하는 것은 진정한 살인이 아니다. 그는 죽어 있고 '나'도 죽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성의 완전한 상실, 뿌리뽑힌 자의 삶, 현실부적응자의 모습은 근작 「미늘」의 세계에까지 이어진다.

「황야」에서 진학은 반정부 희곡을 쓴 것이 발미가 되어 모진 고문을 당한 후 미국으로 이민간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서도 자기 자신에게서도 끝없이 도피한다. 「황야」에서의 고문은 「하얀전쟁」에서의 전쟁과 대응한다.

「미국인의 아버지」에서 한우식 역시 현실부적응자다. 아내와 딸의 부정에 속수무책인 그는 미국에 이민을 간 지 십수년이 흘렀건만 미국적 생활과 사고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기만 한다. 그는 한국인도 미국인도 되지 못하고 다만 집안의 세간을 부숨으로써 현실부적응을 폭로할 뿐이다.

안정효의 작가적 역량이 돋보이는 「미늘」에서도 주인공 구찬은 늘 도피하는 사람이다. 그는 재산가의 양아들로 재산싸움에서도 아내와의 애정에서도 자신없는 무기력한 인간이다. 심지어 그가 사랑하는 수미와의 관계에서도 그는 도피만 할 뿐이다. 그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낚시터이다. 그러나 낚시는 다만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한 방편일 뿐이다. 그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삶을 두려워 한다. 그에게 삶이란 그리고 운명이란 '스스로 삼키다 목구멍에 박히는 하나의 작은 미늘 돋은 바늘'에 불과하다.

소외와 부적응의 근원 모색

안정효의 주인공들은 전쟁, 사랑, 직업 등등의 현실에서 늘 소외당하고 뿌리뽑힌다. 전쟁 체험소설 「은마는 오지 않는다」와 「하얀전쟁」은 그의 이러한 부적응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기층하게 해준다. 역사의 무게에서 벗어나 반전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주제로 접근하고 있는 그의 소설들에게 우리는 한국적 이데올로기의 상황을 강요해야 할 것인가. 그 강요 또한 시대적 편견이 아닐까. 오히려 그의 작가적 독특함을 부적응의 원인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적응의 요건으로 뒤집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부적응자의 삶의 정당한 출구를 확보하는 문학의 본래적 명제에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이다.